

## 초기부적응도식과 도박 심각도의 관계에서 금전 동기의 매개효과

김 영 혜<sup>†</sup>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김 영 훈

High-1 Resort

본 연구에서는 Young(1990)의 도식치료 이론을 바탕으로, 이 이론의 주요 개념인 초기부적응도식과 도박의 심각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도박 심각도에 영향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 금전 동기(이홍표, 2002)가 어떤 역할을 하는 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과도한 도박 행위로 인해 3개월간 카지노 출입이 제한된 18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초기부적응도식, 금전 동기, 도박 심각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초기부적응도식은 도박 심각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금전 동기와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금전 동기는 도박 심각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초기부적응도식이 도박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금전 동기가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지 검증한 결과, 금전 동기는 초기부적응도식과 도박 심각도 사이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으로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한 의의와 몇 가지 제한점을 덧붙였다.

주요어 : 초기부적응도식, 도박 심각도, 금전 동기

<sup>†</sup> 교신저자 : 김영혜,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443-74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번지  
Tel : 031-219-1948, E-mail : yh9848@yahoo.co.kr

일반적으로 도박의 사전적 정의는 ‘금품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일’(두산백과사전)이다. 역사적으로도 조선시대 문학서인 《대동야승(大東野乘)》에는 “혁기(奕碁: 바둑)·장기·쌍륙 등과 같은 유희는 소일하기 위한 것이나, 어떤 자는 너무 즐겨 의지를 상실하는 자도 있고 혹은 도박을 하여 재산을 손해 보는 자도 있었다”(두산백과사전)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이다. 사전적 설명에서 보듯,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나친 도박이 개인과 사회에 폐해를 가져온다고 알고 있다. 도박이 여가를 즐기는 놀이에서 심각한 상태로 진행해 가는 과정에 대해 사회적·문화적인 설명들이 많지만, 도박을 습관적으로 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은 심리적 요인(Ladouceur & Walker, 1996)으로 볼 수 있다.

이홍표(2002)는 놀이가 행위 자체에서 만족감을 얻는 내재적 동기에서 작동하는 반면, 도박은 금전 획득이라는 명백한 외적 보상을 얻기 위한 목적(외재적 동기)이 있다는 점에서 놀이와 구분된다고 하였다. 인간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인 동기(motivation)<sup>1)</sup>는 신체적·심리적 활동을 시작시키고 방향지어주며 유지시키는 데 관여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하는 용어으로써, 모든 유기체는 자신의 욕구와 혐오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특정 자극과 활동을 향해 그리고 다른 자극과 활동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움직인다(Gerrig & Zimbardo, 2002; 박권생, 김문수, 박태진 외, 2004에서 재인용). 예를 들어, 음주 동기란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술을 마시는 음주 행동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선행 요인과 결과를 가지는 것(Cooper, Russell, Skinner, & Windle, 1992)이라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도박 행동을 직접

1) ‘움직이다’라는 뜻의 라틴어 ‘movere’에서 유래함

선택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선행 요인과 결과를 갖는 것이 도박 행동에 대한 동기라고 정의할 수 있다(Barthelme & Barthelme, 2000).

도박 행동과 관련한 동기로는 인간의 기본적인 쾌락추구(고통을 피하고 즐거움을 얻으려 함) 동기를 바탕으로 한 금전적 동기로 설명되어 왔다(Higgins, 1997). 특히 도박을 다른 중독 행동과 구분할 수 있는 고유한 동기는 돈에 대한 열망(Herscovitch, 1999)이라고 보았다. Cray(1987)는 병적 도박자들이 도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전적 보상이나 승리의 쾌감 등 보상 단서에는 민감하나 도박에 따른 금전적 손실이나 사람들로 부터의 비난 등 처벌 단서에는 둔감하다고 하여 금전에 대한 병적 도박자들의 강한 욕구를 설명하고 있다. 이홍표(2002)는 음주 행동의 동기를 연구한 선행 연구들(Cooper, Russell, Skinner, & Windle, 1992; Cox & Klinger, 1988; Rosenthal, 1992)을 토대로 도박 동기를 분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자들이 검증한 3가지 음주동기인 사교동기, 유희동기, 회피동기와 함께 흥분동기와 금전동기를 포함하여 5가지 도박동기가 도박문제의 심각성 또는 도박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검증하였다. 사교 동기란 함께 즐길 활동이나 여가 선용을 위해, 그리고 친목 모임에서 비난이나 거절을 피하기 위해 가벼운 도박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며, 유희동기는 도박판의 손실 결과에 상관없이, 지나치게 탐닉하거나 역기능을 수반하지 않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동기를 의미한다. 또 회피동기는 낮은 자존감이나 우울감 등 불쾌한 정서를 피하기 위한 것이고, 흥분동기는 강렬한 자극과 감각경험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홍표(2002)의 연구 결과, 도박의 심각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도박 동기는 금전 동기인 것

으로 보고되었다. 이 연구에서 회피 동기는 설명력이 매우 적었고 흥분 동기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사고 동기와 유희 동기는 영향력이 없거나 오히려 생활 부적응이나 법적 위기를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도박에 개입되면 더 많이 더 자주 돈을 걸게 되고 손실과 자제력 상해, 생활의 피해가 증가하고 그럴수록 돈에 대한 열망은 더욱 더 강해지고 악순환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홍표, 2002).

이러한 연구들은 병적인 도박 행동의 기저에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 있으며 그러한 요인 중에 금전 추구에 대한 동기가 가장 영향력 있는 동기임을 보여준다. 도박자들의 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경험적 연구에는 심리학적 연구뿐 아니라 신경생물학적 연구들도 있는데, 최근의 한 연구(허태균, 김학진, 박정열, 2009)에서는 도박 행동의 유전적·신경 생물학적 측면을 다루었다. 이 연구의 신경생물학적 결과에 따르면 기대 조건에서 보상 예측 오류 관련 신호를 보이는 복측 선조체가 금전적 보상을 신경학적 신호로 부호화하여 도박 행동을 강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가설(Kantak, Black, Valencia, Green-Jordan, & Eichenbaum, 2002; 허태균 등, 2009에서 재인용)을 재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금전 동기가 도박 행동을 다른 중독 행동과 구분 지어준다는 선행 연구들을 생물학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금전 동기는 심리학적·생물학적으로 도박행동을 설명하는 주요 동기로서 도박의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허태균 등(2009)의 연구에서 실시한 신경생물학적 실험의 피험자가 지나치게 적어서 개인차의 오차가 있을 가능성을 남

겨 두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도박 중독과 성격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는데, Big 5 성격 요인 중 ‘성실성’(자기절제) 요인이 도박 중독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즉 자기절제를 하지 못하는 부주의한 성격의 사람들이 도박 중독에 빠지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허태균 등, 2009).

도박과 성격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이전에도 있어왔는데, 예를 들어 신영철(2002)은 성격이 병적 도박의 발생과 경과, 예후 등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라고 하면서, 병적 도박자들을 우울성향이 높거나 성격적으로 내향적이며 현실적응이 어려워 도박에 빠지는 현실 회피형과 충동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찾는 성향이 높아 도박에 빠지는 자극추구형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이홍표(2002)는 도박에 작용하는 동기와 인지적 변인들 및 성격적 변인은 개별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병적 도박자들의 내면에서 작용하는 요인들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성장 환경이나 성격적 특성과 연관이 높을 것이라고 하였다. 김민우(2004)도 도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개인의 심리적, 성격적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Slutske, Caspi, Moffitt와 Poulton(2005)은 인간은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데 독특한 반응양상을 나타내므로 성격에 대한 이해는 병적 도박 행동에 대한 위험요인 설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여러 심리학자의 성격에 대한 정의를 포괄한 Pervin(1996)은 “성격은 과거의 영향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및 미래의 구성뿐 아니라 과거의 기억을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성격은 지속적이고 일관된 그리고 안정적인 특성을 가진다.

인지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성격을 구성

하는 요소인 일관성과 안정성을 가지는 하나의 패턴으로써 도식을 들 수 있다. 인지치료자인 Young(1990)은 도식이란 자기와 환경을 이해하고 다루어 나가는 틀로써 이것은 아동기 시절 중요한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고 하였다. 도식은 이것이 형성되었던 상황과 관련된 사건을 통해 현재 문제로 활성화되는데, 도식이 촉발되었을 때 강한 감정을 일으키고 직·간접적으로 심리적인 고통(우울, 공황, 외로움, 파괴적 관계, 부적절한 수행, 알콜·약물 등의 중독, 과식, 쾌양이나 불면증 같은 신체화)을 이끌어낸다고 하였다(McGinn, Young, & Sanderson, 1995). 이와 같이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에 발달하는 자기 자신 및 타인과의 대인관계에 대한 평가 및 기억, 감정, 인지, 신체감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의미한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역기능적인 만연된 주제 혹은 패턴’을 초기부적응도식으로 정의하였다(Young, Klosko, & Weishaar, 2003). Young 등(2003)은 초기부적응도식 형성 과정에서 익숙해진 패턴을 반복하거나 그러한 초기부적응도식의 활성화 또는 촉발을 피하기 위해, 과거에 느꼈던 고통, 갈등, 직면, 책임감, 노력 등이 현재에 유사하게 반복되는 상황을 회피하고 지루하거나 불편한 일을 대충 처리하는 등 직장 생활이나 학교생활을 해내지 못하고 장기적인 직업 목표를 잡지 못하게 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정서적인 불편감을 회피하기 위해 강박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도박자들은 자신이 유리되었거나, 학대당했거나, 거절당했거나 혹은 남에게 휘둘림을 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도박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은 도식이 도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병적 도박자들

에게 도박 행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평가하게 한 Jacobs(1987)의 연구에서 도박 행동은 자극, 이완, 정서적 긴장의 탈출이 목적이라고 하였던 결과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Young 등(2003)에 따르면, 이 도식들은 개인적 목표를 이루는 데 적절한 자기통제능력 및 좌절을 견디는 능력에서 제한적이며 고통, 갈등, 직면, 책임감, 노력 등을 회피하기 때문에 개인적 성취, 헌신, 통합을 이뤄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초기부적응도식의 형성 과정에서 익숙한 패턴을 반복하거나 이러한 도식을 피하기 위해 지나치게 먹고 마시거나 도박이나 마약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현실적인 기대치와 목표에서 벗어난 과도한 금전의 추구(도박) 혹은 물질(마약, 음주 등)의 추구를 통해 도식이 활성화되거나 촉발되는 것을 회피하도록 해준다. 즉 도식은 금전의 추구 혹은 도박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도식을 회피하기 위해 추구하는 도박이나 마약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사용을 통해 점차 심각한 상태인 중독이라는 악순환을 맞게 된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김영혜(2009)는 Young 등(2003)의 관점으로 우리나라 병적 도박자의 초기부적응도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병적 도박자 집단이 문제성/사교성 도박자 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도식은 유기/불안정 도식, 결함/수치심 도식, 의존/무능감 도식, 부족한 자기통제/자기훈련 도식 등 4가지 도식으로 나타났다. 김영혜(2009)의 연구 결과는 병적 도박자들에게 고유한 그리고 이들의 현재 문제 행동과 상관관계를 보이는 특성으로써 4가지 초기부적응도식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Young 등(2003)의 설명을 지지하였다. 또한 Big 5 성격 요인 중 낮은 ‘성

실성(자기절제)이 도박 중독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 허태균 등(2009)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부족한 자기통제/자기훈련’도식이 병적 도박자의 성격적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김영혜(2009)의 연구에서는 도박 심각도(병적/문제성/사교성)에 따른 초기부적응도식과의 상관관계 및 집단간 차이만을 알아보았을 뿐, 초기부적응도식이 도박의 심각도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초기부적응도식이 도박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금전 동기가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김영혜(2009)의 연구 결과에 따라 병적 도박자의 초기부적응도식 4가지(유기/불안정 도식, 결합/수치심 도식, 의존/무능감 도식, 부족한 자기통제/자기훈련 도식)를 PG-초기부적응도식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리고 PG-초기부적응도식, 도박의 심각도 및 금전 동기에 대한 상관분석을 통해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알아보고 금전 동기가 PG-초기부적응도식과 도박 심각도를 매개하는 지 검증하고자 한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과도한 도박 행위로 인해 3개월 이상 카지노 출입 정지 결정을 받은 사람들 2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9명을 제외한 181명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181명 중 남성 160명(88.4%),

여성 21명(11.6%)이었고 남성의 평균 연령은 40.64세( $SD=9.59$ ) 여성의 평균 연령은 48.52세( $SD=11.92$ )로 나타났다. 학력은 초졸 2명(1.1%), 중졸 15명(8.3%), 고졸 57명(31.5%), 전문대졸 25명(13.8%), 대졸 82명(45.3%)이었다.

### 측정도구

#### 한국형 사우스-오크 병적 도박 검사(Korean Form of South-Oaks Gambling Screening: K-SOGS)

한국형 사우스-오크 병적 도박 검사는 Lesieur와 Blume(1987)이 개발한 South-Oaks Gambling Screening을 최완철, 김경빈, 오동열과 이태경(2001)이 38명의 단도박 회원과 155명의 대조군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검사이다. K-SOGS는 병적 도박과 관련하여 병적 도박의 수준, 병적 도박의 진단에 많이 사용하는 검사로 신뢰도 계수는 .95이며, 병적 도박 기준점은 5점이다. 김영훈(2005)의 연구에서 K-SOGS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5였고 본 연구에서는 .85로 나타났다.

#### 한국판 도식질문지(Korean Schema

#### Questionnaire: KSQ)

Jeffery E. Young의 도식질문지(Young Schema Questionnaire: YSQ)의 한국판을 사용하였다. 총 90문항이며 6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1점: 전혀 그렇지 않다, 6점: 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도식 특징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간주한다. Schmidt, Joiner, Young과 Telch(1995)의 연구에서  $\alpha$  계수는 .83-.96이었으며 비 임상표본에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50-.82로 나타났다. 조성호(2001)의 한국판 표준화 연구에서 각 요인들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75에서 .9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김영혜(2009)의 연구 결과에 따라 병적 도박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도식인 유기/불안정 도식(5문항), 결합/수치심 도식(5문항), 의존/무능감 도식(5문항) 및 부족한 자기통제/자기훈련 도식(5문항) 등 총 4개 도식 2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합치도는 평균 .93이었다.

### 금전 동기 척도(A Problem-Focused Style of Coping: PF-SOC)

본 연구에서는 이흥표(2002)의 연구에서 처음 제작하여 사용하였던 도박 동기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도박을 하는 이유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총 42개 문항들을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만들어져 있다(1=전혀 그렇지 않다, 3=보통, 5=매우 그런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42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도박 동기 척도 중 금전 동기에 해당하는 12개 문항을 사용하였다(예,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한 번에 큰 돈을 만질 수 있어서' 등). 이흥표(2002)의 연구에서 금전 동기의 내적 합치도는 .95였고, 김영훈(2005)의 연구에서는 .94였다. 본 연구에서는 .91로 나타났다.

### 자료분석

각 변인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첫째, 각 변인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를 산출하였다. 둘째, PG-초기부적응도식, 금전동기 및 도박 심각도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셋째, PG-초기부적응도식이 도박 심각도를 어느 정도 예측하는지와 PG-초기부적응도식이 도박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금전 동기가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매개 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1982)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모든 통계분석은 SPSS WIN 1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 결 과

### PG-초기부적응도식, 금전 동기 및 도박 심각도의 기초 통계치와 상관 분석

표 1에서는 각 변인들의 문항 수, 점수의 범위, 그리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특히 도박 심각도의 평균 점수가 5.06으로 K-SOGS의 병적 도박 기준점인 5점을 넘었다. 즉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과도한 도박 행위로 인해 카지노 출입을 일시적으로 정지당한 사람들로서 이들의 도박 심각도 수준은 병적 도박으로 평정될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병적 도박 기준점을 넘는 심각한 도박자들이지만 이들 중에는 자신의 도박 정도가 전혀 심각하지 않다(0점)고 평가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서 도박 심각도에 대한 방어 혹은 왜곡 상태를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다.

표 2를 보면, PG-초기부적응도식은 금전 동기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 $r=.43, p<.01$ )을 나타냈고 도박 심각도와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 $r=.32, p<.01$ )을 나타냈다. 금전 동기와 도박 심각도는  $r=.37 (p<.01)$ 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표 1. PG-초기부적응도식, 금전동기, 도박심각도의 기초 통계치 (N=181)

변 인	문항 수	점수 범위	M(SD)
PG-초기부적응도식	20	20-89	44.12(14.33)
금전 동기	12	12-45	25.68(8.02)
도박 심각도	10	0-10	5.06(3.00)

표 2. PG-초기부적응도식, 금전동기, 도박심각도 상관관계 (N=181)

변 인	PG-초기부적응도식	금전 동기	도박 심각도
PG-초기부적응도식	1		
금전 동기	.43**	1	
도박 심각도	.32**	.37**	1

\*\* $p < .01$ .

### 금전 동기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표 2의 상관분석 결과, 각 변인간 상관이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나 매개효과 분석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므로 PG-초기부적응도식이 도박 심각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금전 동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 (1986)가 제안한 절차를 사용하였다. 이 절차는 세 개의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여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매개효과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3단계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첫째, 첫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둘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셋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동시에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때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세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보다 줄어들어야 매개효과를 나타낸다

고 할 수 있다. 이때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완전 매개효과를 보인다고 하며, 유의할 경우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금전 동기의 매개역할에 대한 검증 결과는 표 3에서 볼 수 있다.

PG-초기부적응도식과 도박 심각도의 관계에서 금전 동기의 매개효과(표 3)를 보면, 우선 금전 동기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 PG-초기부적응도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변수( $\beta = .43, p < .001$ )로 나타나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켰다. 그리고 도박 심각도를 종속변수로 넣은 두 번째 조건에서 PG-초기부적응도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beta = .40, p < .0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개변수인 금전 동기를 추가하여 PG-초기부적응도식과 함께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도박 심각도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 PG-초기부적응도식이 도박 심각도에 대해 유의한 영향력( $\beta = .20, p < .01$ )을 나타내고 금전 동기도 도박 심각

표 3. PG-초기부적응도식과 도박심각도의 관계에서 금전동기의 매개효과 (N=181)

단 계	변 수	B	SE B	$\beta$	R <sup>2</sup>	F
1단계(독립→매개)	PG-초기부적응도식→금전 동기	.07	.01	.43***	.18	39.82***
2단계(독립→종속)	PG-초기부적응도식→도박 심각도	.09	.02	.40***	.16	33.50***
3단계 (독립, 매개→종속)	금전 동기→도박 심각도	.01	.01	.20**	.17	17.79***

\*\* $p < .01$ , \*\*\* $p < .001$ .

도에 대해 유의한 영향력( $\beta = .29, p < .001$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세 번째 조건을 충족시킨다. 이때 두 번째 조건에서 보다 세 번째 조건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감소하였으므로( $\beta = .40 > \beta = .20$ ) PG-초기부적응도식과 도박 심각도의 관계에서 금전 동기가 부분 매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Sobel(1982) 검증을 한 결과, 유의미(Sobel's T:  $Z = 3.25, p < .01$ )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는 초기부적응도식과 도박의 심각도가 어떤 관계를 갖는 지 알아보고 이 두 변인간의 관계에서 금전 동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과도한 도박 행위로 인해 카지노 출입이 금지된 실제 도박자 181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초기부적응

도식, 금전 동기, 그리고 도박 심각도를 측정하였다. 이 연구 대상자들은 K-SOGS의 병적 도박 기준점인 5점을 넘는 평균값 5.06(표준편차, 3.00)을 보임으로써 심각한 도박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Young 등(2003)의 초기부적응도식 가운데 김영혜(2009)의 연구에서 병적 도박 집단이 사교성 및 문제성 도박 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4가지 도식(유기/불안정 도식, 결합/수치심 도식, 의존/무능감 도식, 부족한 자기통제/자기훈련 도식)을 본 연구의 초기부적응도식으로 설정(PG-초기부적응도식으로 명명)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PG-초기부적응도식과 금전동기, PG-초기부적응도식과 도박 심각도 그리고 금전 동기와 도박 심각도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금전 동기는 PG-초기부적응도식과 도박 심각도 사이에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즉 PG-초기부적응도식과 도박 심각도간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금전 동기는 PG-초기부적응도식과 도박 심각도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한다. 이러한 결과는 성격적 소인이 문제성 도박으로 발전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채규만과 이홍표(2004)의 설명을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4개의 PG-초기부

2) 유의도 계산 공식:  $z\text{-value} = a * b / \sqrt{(b^2 * s_a^2 + a^2 * s_b^2)}$

주: a =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간의 비표준화 회귀계수, b = 매개변수와 종속변수간의 비표준화 회귀계수,  $s_a$  = a의 표준오차,  $s_b$  = b의 표준오차.



적응도식은 도박 심각도를 16% 설명하였는데 이는 도박 심각도를 설명하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연구(황현국, 2005)에서 나타난 수치들 즉 감각추구성향의 하위 척도인 강렬함(8%)나 충동성의 하위 척도인 운동 충동성(9.5%)보다 높은 수치이다. 또한 위험추구의 도박 심각도에 대한 설명력이 8%(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음)였던 채규만과 이홍표(2004)의 수치보다도 높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도박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성격적 변인으로써의 PG-초기부적응도식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심각한 도박 행동은 단지 현재의 반복적인 도박 행동으로 인해 심각해진다기보다는 초기부적응도식의 영향, 즉 초기 아동기 및 청소년기의 핵심적인 정서적 경험의 상호작용의 결과가 현재의 도박 심각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심각한 도박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예측되는 병적 도박자의 초기부적응도식, 즉 유기/불안정 도식, 결함/수치심 도식, 의존/무능감 도식, 부족한 자기통제/자기훈련 도식의 특징들을 도식 치료 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기/불안정 도식**은 자신에게 지지와 연결을 제공하는 대상이 불안정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고 지각하며 중요 타인들이 자신에게 정서적인 지지, 연결, 힘, 실질적인 보호 등을 꾸준히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도식을 의미한다. **결함/수치심 도식**은 자신을 결함이 있고 나쁘며 남들이 원하지 않고 열등한 존재이며 중요한 측면에서 취약한 존재하고 느끼거나 자신의 참 모습이 드러나면 중요한 타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느낀다. 이들은 비판, 거절, 비난 등에 과민하고 자의식이 강하며 남들과 비교를 많이 하고 남들과 있을

때 불안전감을 느끼며 자신의 결함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도식을 가지고 있다. **의존/무능감 도식**은 타인의 상당한 도움이 없으면 자신의 일상적인 업무(자기 자신 돌보기, 일상적인 문제 해결하기, 잘 판단하기,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기, 잘 결정하기)를 유능하게 감당해 낼 수 없다고 믿는 특징을 보인다. **부족한 자기 통제/자기훈련 도식**은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적절한 자기통제능력 및 좌절을 견디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발휘하지 않으려 하며 자신의 감정이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과도하게 표현한다. 이들은 불편감이나 고통, 갈등, 직면, 책임감, 노력 등을 지나치게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성취를 이뤄내지 못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도식이 형성되는 데에는 초기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핵심적인 정서적 욕구의 결핍을 지닌다고 가정된다. 예를 들어 타인과의 안정 애착(안전감, 안정감, 돌봄, 수용 등), 자율성, 유능감, 정체감, 타당한 욕구와 감정을 표현하는 자유, 자발성과 유희, 현실적인 한계 및 자기 통제 등이 그것이다(Young 등, 2003).

본 연구에서 이 4가지 도식(PG-초기부적응도식)들은 금전 동기를 18% 설명하였고 금전 동기에 미치는 영향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병적 도박자들이 금전적 보상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졌다고 말한 Cray (1987)의 연구 결과에서 한 걸음 나아가 왜 그들이 금전적 보상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금전적 보상에 대한 강한 욕구는 첫째, 자신에게 지지와 연결이 되는 어떤 대상을 갖고자 하는 욕구(유기/불안정 도식), 둘째, 자신이 결함이 있고 나쁘며 타인에게 존중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과 불안전감에 대한

보상 욕구(결함/수치심 도식), 셋째, 타인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판단 하에 자기 일을 잘 결정해서 해 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욕구(의존/무능감 도식), 넷째, 개인적 성취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면을 보상하고, 고통, 갈등, 직면, 책임감 등을 회피하는 수단(부족한 자기통제/자기훈련 도식) 등으로 금전 욕구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성장 과정동안 부모를 포함한 중요 타인과의 상호작용들을 개인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자기 자신에 대한 도식, 타인에 대한 도식 그리고 세상에 대한 도식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부모로부터 버려질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모가 원하는 유형·무형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하거나 의식적·무의식적으로 부모와 밀착하려 하기도 하고, 타인과 비교하는 비판적 부모에게 수용받기 위해 타인보다 우월한 성취를 해내려고 노력하는 행동을 했던 것과 유사하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일종의 표면적인 성취와 인정을 의미하는 금전 획득 행위를 추구하고 이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병적 도박자들에게 ‘금전’은 초기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경험한 핵심적 정서적 욕구의 결핍을 대체 혹은 보상해 주는 것 일 수 있다. 이들에게 ‘금전’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돈이 아니라 자신이 불안하거나 거절당하거나 열등하다고 느낄 때의 심리적 고통이나 불편감을 상쇄시켜주는 심리적 자산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실제로 도박 중독자 상담에서, 이들은 ‘돈을 따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며 ‘그럴 때 마음이 편해지고 힘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종종 한다). 따라서 금전

추구 행동은 이미 형성된 초기부적응도식들에 대한 대처반응의 일종인 회피와 보상의 특성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Ladoucer와 Walker(1996)는 병적 도박자들이 잘못된 인지와 돈을 따고자 하는 동기, 최소한 게임에서 이기고자 하는 동기가 결합하여 도박을 지속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초기부적응도식의 관점에서 보면, 도박을 지속하게 하는 잘못된 인지 틀이 ‘잘못 되었다’라고 평가하기 보다는 취약하고 결핍되었던 어린 시절에 사용했던 적응적 가치가 있던 인지 패턴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연구 대상을 실제로 과도한 도박 행위로 인해 일시적으로 카지노 출입을 제한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주제와 대상의 일치성이 높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 PG-초기부적응도식이 심각한 도박 행동에 직접적인 관계를 나타낸다는 것과 이 과정에서 ‘금전 획득의 추구’라는 금전 동기가 이 둘의 관계를 부분 매개한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 자료로 하여 초기부적응도식과 도박 심각도를 매개하는 또 다른 변인들(예, 충동성, 감각 추구, 다른 성격적 변인들 등)에 대한 연구와 이 변인들이 갖는 영향력 및 설명력에 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 자료들은 개인적·사회적·문화적으로 큰 병폐를 낳는 도박 행동으로 고통 받는 개인 및 가족들의 정신건강을 돕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PG-초기부적응도식이 금전 동기에 미치는 영향력도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엇이 초기부적응도식과 도박 동기를 매개하는 지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또한 병적 도박자의 초기부적응도식에 영향을 끼치는 도박자 고유의 아동기 및 청소년기 경

험은 무엇인지에 관한 경험적 자료의 축적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는데,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학력 및 연령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본 연구 대상들의 90% 이상이 고졸 이상의 고학력으로 나타났는데, 학력과 도박 행동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후 연구에서는 병적 도박자들의 도박 시작 연령 및 지속 연령, 그리고 학력과 상관관 설명력 등에 관한 분석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과도한 도박 문제로 카지노 출입이 제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고식 설문지인 한국형 사우스-오크 병적 도박 검사(K-SOGS)에서는 '나는 도박 문제가 전혀 없다'(0점)고 체크한 도박자가 7명이었다. 이 반응은 병적 도박자의 핵심적 임상 특징인 의도적 거짓말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병적 도박자가 자기보고식 설문지에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감추려는 반응 왜곡 중 긍정 왜곡(Faking-Good) 반응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과도한 도박 행위로 인해 일정 기간(3개월) 도박장 출입이 정지된 이들은 정해진 상담 회기(3-6회)를 이수하고 나면 출입 정지가 해제되도록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자기보고식 설문지가 가지고 있는 제한점을 보완하고 중독 상담 현장에서 회기 진행에 따라 도박 심각도가 실제로 경감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즉 병적 도박자의 심각도 및 평가는 자기보고식 평가뿐 아니라 정신과적 임상 진단 기준 및 투사적 검사에서의 인지·충동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 참고문헌

- 김민우 (2004). 문제도박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혜 (2009). 병적 도박자의 초기부적응도식과 대처방식.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지: 인지행동치료, 9(2). 인쇄중.
- 김영훈 (2005). 병적도박자의 단도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권생, 김문수, 박태진, 성현란, 이종한, 최해림, 홍기원 (2004). 심리학과 삶. 서울: 시그마프레스.
- 신영철 (2002). 병적 도박의 신경생물학 및 약물치료. 생물치료정신의학, 8(1), 27-33.
- 이홍표 (2002). 비합리적 도박신념, 도박동기 및 위험감수 성향과 병적 도박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성호 (2001). 한국판 도식질문지의 요인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77-192.
- 채규만, 이홍표 (2004). 위험추구 소인과 도박동기 및 도박 심각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4), 1061-1075.
- 최완철, 김경빈, 오동열, 이태경 (2001). 한국형 사우스-오크 병적 도박 검사 표준화에 대한 예비연구. 중독정신의학, 5, 46-52.
- 허태균, 김학진, 박정열(2009). 도박문제 행동의 발생과정에 관한 종·횡단연구 보고: 여기에서 중독으로 변하는 심리과정에 대한 인지·동기·신경생물학적 규명. 강원랜드 산하 한국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연구보고서.
- 황현국 (2005). 도박심각도와 성격 및 각성수준과의 관계: 기저선과 승·패의 도박조건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arthelme, F., & Barthelme, S. (2000). *Double down: reflections on gambling and loss*. Boston: Houghton Mifflin.
- Cooper, M. L., Russell, M., Skinner, J. B., & Windle, M. (199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three-dimensional measure of drinking motives. *Psychological Assessment*, 4, 123-132.
- Cox, M., & Klinger, E. (1988). A motivational model of alcohol abus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7, 168-180.
- Cray, J. A. (1987). Personality on anxiety and impulsivity: a commentar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1, 493-509.
- Gerrig, R. J., & Zimbardo, P. G. (2002). *Psychology and Life*. Allyn & Bacon.
- Herscovitch, A. G. (1999). *Alcoholism and Pathological Gambl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Holmes Beach, Florida: Learning Publications, Inc.
- Higgins, E. T. (1997). Beyond pleasure and pain. *American Psychologist*, 52(12), 1280-1300.
- Jacobs, D. F. (1987). A general theory of addiction: Application to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planning for pathological gamblers. In T. Galski(Eds.), *The Handbook of Pathological Gambling*(169-194), Springfield, Illinois: Chaarles C Thomas.
- Kantak, K. M., Black, Y., Valencia, E., Green-Jordan, K., & Eichenbaum, H. B. (2002). Stimulus-response functions of the lateral dorsal striatum and regulation of behavior studied in a cocaine maintenance/cue reinstatement model in rats. *Psychopharmacologia*, 161(3), 278-287.
- Ladouceur, R., & Walker, R. (1996). A cognitive perspective on gambling. In PM Salkovskis (Ed), *Trends in Cognitive and Behavioral Therapies* (pp.89-120). NY: John Wiley & Sons Ltd.
- Lesieur, H. R., & Blume, S. B. (1987). The south oaks gambling screen (SOGS): A new instrument for the identification of pathological gambler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4, 1184-1198.
- McGinn, L. K., Young, J. E., & Sanderson, W. C. (1995). When and How to Do Longer Term Therapy... Without Feeling Guilty. *Cognitive and Behavioral Practice*, 2, 187-212.
- Pervin, L. A. (1996). *The science of personality*. New York: Wiley.
- Rosenthal, R. J. (1992). Pathological gambling. *Psychiatric Annals*, 222, 72-78.
- Schmidt, N. B., Joiner, J. E., Young, J. E., & Telch, M. J. (1995). The Schema Questionnaire: Investigation of psychometric properties and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a measure of maladaptive schemata.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9, 295-321.
- Slutske, W. S., Caspi, A., Moffitt, T. E., & Poulton, R. (2005). Personality and problem gambling: A prospective study of a birth cohort of young adults. *Archive General Psychiatry*, 62(7), 769-775.

- Sobel, M. E. (1982). Asymptotic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1982* (pp.290-312). San Francisco: Jossey-Bass.
- Young, J. E. (1990). *Cognitive therapy for personality disorders*. Sarasota, FL: Professional Resources Press.
- Young, J. E., Klosko, J. S., & Weishaar, M. E. (2003). *Schema therapy: A practitioner's guide*. New York: Guilford Press.
- 원 고 접 수 일 : 2009. 8. 18  
수정원고접수일 : 2009. 10. 30  
게 재 결 정 일 : 2009. 11. 21

**The Mediating Effect of Monetary Motive(MM)  
on Early Maladaptive Schema(EMS)  
and Gambling Severity(GS)**

**Young-hye Kim**

Ajou University

**Young-hoon Kim**

High-1 Resort

This study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Gambling Severity(GS) and Early Maladaptive Schema(EMS), which is the principal concept in Young's schema-focused therapy (1990). It also examined the role played by Monetary Motive(MM), a factor known to massively influence Severity of Gambling (Lee, Hongpyo, 2002). A survey was conducted on 181 persons who were banned from entering casinos for three months due to their excessive gambling behavior. The data was analyzed to identify relationship between EMS, MM and the GS. The result showed that EMS had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GS, and the MM also had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GS. An examination of the mediating role of MM between EMS and GS, revealed that the MM partiall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EMS and GS.

*Key words : early maladaptive schema, gambling severity, monetary motive*